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교회 주일예배
열왕기하 13:14-19
2025 년 8 월 24 일 오전 11 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 주여 도우소서 >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관계가 깨지고, 신앙생활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 새 길을 열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국의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 왕은 축소된 영토, 궤멸된 군대와 같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실패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요아스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주 말씀처럼 남왕국의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전후해서 완전 다른 인물이 됩니다. 비슷하게 북왕국의 요아스 왕도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계기로 다른 인물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후에 아합 가문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을 공중 화장실로 만드는 등 우상 숭배를 철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후의 충성을 보시고 예후의 증손자 4 대까지 왕이 될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허나 예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변절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왕하 10:31).

1. 복을 받고도 변절한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왕이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여로보암도 그렇고 예후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신분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된 반면에 여로보암은 열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헌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본인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예후도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한 왕조의 창시자가 되고 자손 4 대까지 왕조가 지속된다는 복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받은 후에 변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고,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중간에 빼앗긴 일은 있었지만, 회개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후는 왕이 된 후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뱀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왕하 10:28-29).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왕하 10: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후는 요단 동편 영토인 길르앗을 모두 아람의 하사엘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왕하 10:33).

예후가 죽은 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이십삼 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칠 년간 다스리며”(왕하 13:1). 요아스 제 23 년이면, 남왕국에서 예루살렘 성전 수리가 시작된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성전 보수를 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한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새 왕이 등극했어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2 절).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예후가 하나님을 섬길 때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를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3 절). 하나님께서 아람을 징계와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 뿐 아니라 그 아들 벤하닷에게까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대를 이어 아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아람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4 절).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5 절). 오늘 본문은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구원자를 엘리사로 봅니다. 구원자가 어떻게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 상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아람의 학대와 억압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으면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2. 복을 받았을 때 더욱 충성하라

헌데 여호아하스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한숨 돌리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6 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짝이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는 것은 바알 숭배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보다 더 우상 숭배가 심해진 것입니다.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결과는 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의 티끌 같이 되게 하고 마병 오십 명과 병거 열 대와 보병 만 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 두지 아니하였더라”(7 절).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던 아람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궤멸시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기마병 50 명과 병거 10 대와 보병 10,000 명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또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는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한 것 때문에 아버지 예후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삼십칠 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육 년간 다스리며”(10 절). 이때가 남왕국의 왕 요아스 제 37 년입니다. 남왕국의 요아스 왕이 40 년 동안 재위하였기 때문에 3 년 간 남왕국의 왕도 요아스, 북왕국의 왕도 요아스였습니다.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축소된 영토, 궤멸된 군대를 물려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11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25 절). 요아스는 아람의 왕 벤하닷과의 싸움에서 세 번이나 승리를 거두고 아버지가 빼앗긴 성읍들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물려받은 형편없는 군사력으로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14 절).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볼 때, 질병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오프리 왕조보다 예후 왕조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예후 왕조를 출범시켰고 여호아하스 왕 때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와 여호아하스는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달랐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질 때 진심으로 슬퍼한 것과 비슷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왕하 2:12). 엘리사는 엘리야와 헤어지는 슬픔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외쳤습니다.

3. 끝까지 승리의 화살을 쏘라

요아스 왕 역시 엘리사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말과 엘리야가 남긴 겹옷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요아스 왕도 알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것처럼, 자신도 엘리사의 사역을 계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하였다면, 요아스는 엘리사의 구원자의 사역을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아스 왕의 진심을 안 엘리사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15 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메어 활을 쏘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16 절).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얹은 후에 동쪽으로 쏘라고 말합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이다 하니라”(17 절).

엘리사는 요아스가 지금 쏜 화살이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요단 동편인 아백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합니다. 이로써 요아스는 엘리사가 수행하였던 구원자의 사역을 계승합니다. 허나 요아스는 불완전한 구원자에 머무릅니다. 엘리사가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말할 때, 요아스 왕이 세 번을 치고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18 절). 이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힘도 없는 노인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19 절).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였으면 화를 내었을까요? “땅을 치소서”라고 말했으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쳐야지 왜 세 번만 치고 그만 둬니까? 그만 치려면 예닐곱 번을 쳐야 하고 일곱 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대여섯 번은 쳐야지요. 우리 말에 칠전팔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헌데 성경에도 칠전팔기가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잠 24:16). 여러분, 한 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은 실패와 좌절을 물려받았지만, 엘리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절반의 승리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엘리사나 요아스보다 더 크신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좌절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승리의 화살을 끝까지 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십시오. 세 번에서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